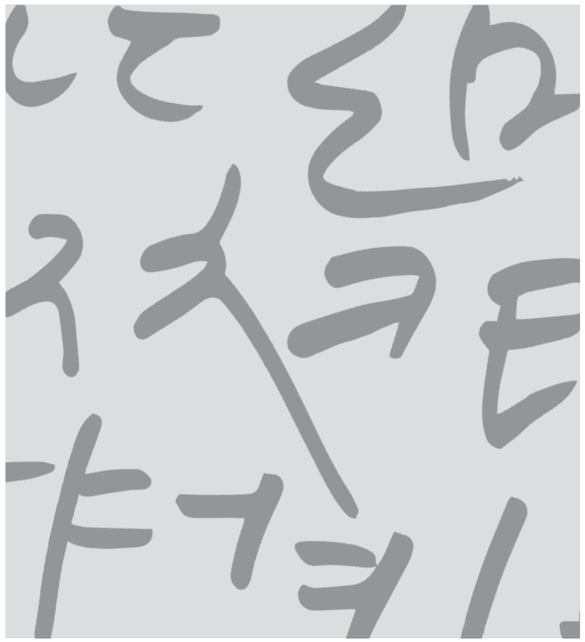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New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the Pandemic

팬데믹 이후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

New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the Pandemic

블랑카 페르클로바, 정연우, 이페트라, 이일성 엮음



제 9 회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워크숍 논문집

KONG & PARK

머리말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한국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학들도 학생과 지원자들의 전례 없는 수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교육 기술 연구를 위한 공간, 학습 도구 및 교육 자료 개발과 실제 적용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도전의 연속일 것이다. 신중한 비교언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어진 수업 자료와 교수법을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맞춰 적절히 리모델링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동료 교육자들과 공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평범했던 일상이 마비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어 교육자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모색해야 했고, 그전까지는 보충 역할로만 사용했던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 주된 교수 수단으로 삼아야 했다. 1년 이상 지속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육자들이 학생과 동료를 전자 장치의 화면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기술적인 환경과 품질이 수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어 교육과 같이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직접 접촉과 상호 작용이 매우 민감한 과목에서 수업을 원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집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범이 될 만한 해결책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국어 수업은 디지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해결책뿐만 아니라, 기존 도구의 더 나은 사용법과 결합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팬데믹이 한국어 교육에 미친 영향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은 팬데믹을 통해 원격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며 전례 없는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실험하고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동영상 등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현장 교수의 가능성이 재개되었음에도 이러한 학습 절차와 도구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이 이를 보조 학습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자산으로 남았다.

본 논문집에는 팬데믹 기간의 한국어 교육을 주요 주제로 하는 기고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고전 음성학, 문법, 의미론, 번역, 문화, 역사 및 기타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집의 저자들은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EAKLE)의 소속이나 유럽 국가에만 국한되어 활동하지 않으며 내용상으로도 한국어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AKLE 소속 회원들은 여러 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동료 교육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수업과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체코 올로모우츠 소재 팔라츠키대학교 아시아학과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이때 발표된 기고문들을 정리하여 본 논문집에 실었다.

끝으로 본 논문집을 준비한 편집팀의 일원으로 올로모우츠 소재 팔라츠키대학교 아시아학과의 Andreas Schirmer 교수님과 EAKLE 워크숍 주최자분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준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3년 5월
체코 올로모우츠·프라하에서
블랑카 페르클로바, 정연우, 이페트라, 이일성

차례

머리말_4

I. 교수법 및 비대면 수업과 한국어 교육

1. Designing Project Modules for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12
안젤라 리-스미스 (Angela Lee-Smith)_ 미국 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

2. Moodle을 사용한 한국어 연습 문제 만들기 프로젝트 28
류현숙_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University of Ljubljana, Slovenia)

3.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in India 42
Rajesh Kumar_ 한국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역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58
– 튀르키예 앙카라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지영_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University of Ankara)

5.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수법, 절충식 교수법? 80
권용해_ 프랑스 라로셸대학교 (La Rochelle Université)

6. 태블릿을 활용한 한국어 회화 수업의 과업 중심 교수법 분석 90
주현주_ 일본 메지로대학교 (Mejiro University)

II. 문화 및 번역과 한국어 교육

1. K-POP 노래를 활용한 취미 목적 한국어 실제 수업 방안 102
안드리이 르즈코프 (Andrii Ryzhkov), 나젤리 로페스 로차 (Nayelli López Rocha)_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2. Teaching Culture in Undergraduate Korean Language Courses in Hungary 118
응우옌 크리스티나 (Krisztina Nguyen)_ 헝가리 엘떼대학교 (Eötvös Loránd University, Hungary)

3.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구체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134
– 북한의《로동신문》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김훈태_ 라트비아 라트비아대학교 (University of Latvia)

4. 번역 강의와 번역 태도 146
– LEA 한국어 전공 과정 번역 수업과 다양한 번역 시도에 대하여
이현희_ 프랑스 리옹 3 대학 (Jean Moulin University Lyon 3)

5. 한국 현대사를 활용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 교육 방안 연구 160
–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김국진_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교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

III. 어휘 및 문법과 한국어 교육

1. L2 한국어의 발달 연구 174
– 처리가능성 이론에 기반하여
왕흠범_ 한국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먹다’와 ‘마시다’ 동사 사용에 관한 연구 192
신정은_ 일본 쓰쿠바대학 (University of Tsukuba)

3. 한국어 강조 정도 부사의 사용 양상 212
– 대학생 구어코퍼스를 바탕으로
윤수미_ 일본 후쿠오카대학교 (Fukuoka University)
고지마 다이키_ 일본 긴키대학교 (Kindai University)

4.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특이성과 교육의 필요성 228
– 이탈리아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강순행_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5. 한국어 용언의 활용형 연구 240
김종덕_ 일본 도시샤대학교 (Doshisha University)

IV. 학습자 및 교육 자료와 한국어 교육

1.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결론 구조에서 드러나는 개입(engagement) 양상 258
공나형_ 한국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 한국어 교육용 용언 활용형 웹 사전 모형 개발 272
(Developing a Korean Conjugation Web Dictionary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박나래_ 한국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 관계 연구를 통한 한국학 발전 방향 모색 282
–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임숙, 문희선_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교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

4. 해외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태도 연구 294
– 교육 과정 내 국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수은_ 한국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곽새롬_ 영국 셰필드대학교 (University of Sheffield)

EAKLE 2022

V. 한자와 한국어 교육

1. Facilitating the acquisition of Korean intermediate vocabulary using Hanja-o from TOPIK tests 326
리브레냐크 사라 (Sara Librenjak)_ 영국 요크세인트존대학교 (York St John University)

2. Sino-Korean Characters and Sino-Korean Vocabulary Teaching Syste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340
이리나 소티로바 (Irina Sotirova)_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Sofia University)

3.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에서의 한자 교육 I 356
이상금_ 라트비아 라트비아대학교 (University of Latvia)

4.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370
–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김위선_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국립대학교 (University of Naples "L'Orientale")

5. 한자 교재의 현재와 유럽에서의 한자 교육 386
이효진_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어휘 및 문법과 한국어 교육

III

제4장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특이성과 교육의 필요성

– 이탈리아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강순행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대학교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1.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특이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이탈리아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이탈리아어와 한국어에서 명사의 복수형은 접미사 ‘-i/e’와 ‘-들’이 명사의 뒤에 부가 표시되며 두 언어 모두 아래 (2)와 같이 가산명사에서 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차이점도 존재한다.

(1) 가. I treni sono veloci (iI treno → I treni)
The trains are fast (the train → the trains)
나. 기차는/(*기차들은) 빠르다.

(2) 가. Ho letto cinque libri (libro → libri)
(I) have read five books (book → books)
나. 책 다섯 권을 읽었다/*다섯 권의 책들을

이탈리아어 복수 형태 명사구에 (대응하는) 한국어 명사구들은 모두 복수 형태보다 단수 형태가 더 자연스러우며 이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복수접미사의 문법적 지위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 복수 형태의 차이점을 통해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이 가지는 문법과 의미 특징 그리고 결합 양상을 살펴본 후에 교육적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2. '-들'의 특징: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복수 형태 비교

이탈리아어는 대표적인 굴절어로 성과 수와 같은 형태론적 정보들에 따라 접미사 조합이 달라진다. 아래의 예를 보자.

(3) 가. uno studente italiano intelligente
an student Italian intelligent
'An intelligent Italian student'
나. due studenti italiani intelligenti
two students Italian intelligent
'two intelligent Italian students'

(4) 가. una bella macchina rossa
a nice car red
'a nice red car'
나. due belle macchine rosse
two beautiful cars red
'two beautiful red cars'

(3)은 남성 명사구, (4)는 여성 명사구로 명사가 복수형으로 바뀌는 경우에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부정관사와 형용사들도 명사의 복수접미사와 같은 형태로 굴절되고 있다. 반면, 아래 (5)와 (6)에 대응되는 한국어 명사구에는 일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복수 의미를 갖는 명사에 복수 표지 '-들'을 부가하면 오히려 비문이 되는데 이러한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복수접미사의 사용과 복수 형태의 차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탈리아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간섭으로 복수 표지 '-들'을 과잉 사용할 오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5) 가. 똑똑한 이탈리아 학생 한 명
나. 똑똑한 이탈리아 학생 두 명(*들)

(6) 가. 멋있는 빨간 차 한 대
나. 멋있는 빨간 차 두 대(*들)

또한 '-들'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될 수 있다(김경열, 2020: 16-17).

(7) 가. 사람들(사람), 학생들(학생)
나. 마음씨들이 참 곱다.
다. 철수가 힘이 나게 용기들을 좀 줘.
라. 모두들(모두)/*모두가들 낄낄 웃었다.

이처럼 '-들'은 셀 수 있는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에 부가되어 그 복수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탈리아어와 달리 문장 내에서 '복수' 해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명사에 '-들'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가. 학생이 공부를 한다.
나.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들'을 포함하고 있는 (8)나.는 복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들'이 실현되지 않은 (8)가.도 단수의 의미와 더불어 복수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1] 이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 접미사의 부가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어에서의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은 개체에 대한 의미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복수접미사 '-들'의 부가 여부와 무관함을 시사한다.

(9) 나는 옷을 산다.

(9)에서 '옷'은 가산명사이지만 문맥에 따라 '옷 한 벌', '여러 벌의 옷', '옷을 반복 혹은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한국어 명사가 가산명사와 비가산명사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과 왜 한국어 문법에서 '수' 범주가 하나의 독립된 문법 범주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산명사에 복수접미사가 명시적으로 부가되는 이탈리아어와 분명히 다르다. 가산명사와 비가산명사의 불명확한 구분은 한국어 수 범주가 하나의 문법 범주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와 그 복수 형태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분되지만 그러한 구분이 문

[1] 김경열(2020: 6)에 따르면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가 문법적 설정에 대한 논의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가 한국어에서 '들'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들'의 실현 유무에 따라 '개체화, 집단화, 복사'와 같은 의미 기능과 문법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들'을 단순히 잉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술어 따위와의 어울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문법 관계로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서정수, 1996: 446).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복수 표지의 또 다른 차이점은 명사를 가산화할 때 개체화시키는 명사 분류사와 공기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0) 가. 나는 하루에 커피(*들) 세 잔(*들)을 마신다.
나. 나는 스파게티(*들) 두 접시(*들)를 먹는다.

(11) 가. Io bevo tre tazze di caffè al giorno
I drink three cups of coffee a day
'I drink three cups of coffee a day'
나. Io mangio due piatti di spaghetti.
I eat two plates of spaghetti
'I eat two plates of spaghetti'

이탈리아어와 달리 한국어 가산명사에 사용된 분류사에 복수 표지 '-들'을 부가하면 비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백미현(2002: 63)은 한국어에서 수사는 개체나 집단을 셀 수 있는 여러 단위로 해체시켜 일종의 개별성을 발생시키므로, 복수 표지를 첨가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잉여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가산명사보다 유정명사에 더 자주 출현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탈리아어와 대조를 이룬다.

(12) 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나. 관광객들이 산 마르코광장에 많다.
다. 베네치아에는 박물관(*들)이 많다.
라. 우리는 메일(*들)을 자주 주고받는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이 유정명사와 관계된 것들에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결합하고 상대적으로 무정명사의 경우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는 것은 무정명사보다 유정명사가 복수성과 개체성이 강하다는 언어 보편적인 특징에 부합한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앞선 (7) 접미사적 특징 이외에도 보조사나 의존명사로도 기능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된 '-들'의 문법적 지위이다(김경열, 2020: 13).

(13) 가.《우리말 큰사전(1992)》: 보조사, 접미사
나.《표준국어대사전(1999)》: 의존명사, 보조사, 접미사
다.《연세 한국어사전(1998)》: 의존명사, 접미사

지금까지 논의된 '-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14) 가. 수의 대립(단수/복수)에 따른 한국어 명사 자체의 형태 변이가 없다.
나. 한국어에서 복수의 표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규칙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들' 표지가 없어도 복수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라. '-들'은 가산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추가한다.
마. '-들'은 가산명사보다 유정명사에 더 자주 출현한다.
사. 명사 분류사 뒤에 쓰지 않는다.
아. '-들'은 접미사적 특징 이외에도 보조사나 의존명사적 특징도 가진다.

[2] 하신영(2019: 63)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문법 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더하며 복수 인칭 대명사에 결합하여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수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뒤에서, 그리고 문장에 복수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 경우 '들'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들'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3. '-들' 의 의미

앞 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들'의 출현 유무와 상관 없이 아래의 (15)가.와 (16)가.는 복수 의미를 가지며 (15)나.와 (16)나.에서 '-들'은 잉여적이면서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15) 가. 관광객이 온다. (단복수 의미, 중의적)
나. 관광객들이 온다. (복수 의미)

(16) 가. 주말 잘 보냈어요? (단복수 의미, 중의적)
나. 주말 잘 보냈어요들? (복수 의미)

하지만 한국어에서 복수 의미를 위한 '-들'의 부가가 잉여적이거나 수의적이지 않다는 논의도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백미현, 2002: 59-61).

(17) 가. 대학생이 시위를 한다. (단복수 의미, 중의적)
나. 대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복수 의미)

(18) 가. *학생이 각자 질문을 했다.
나. 학생들이 각자 질문을 했다.

백미현(2002)에 따르면, (17)가.에서 '대학생'의 복수의 해석은 개별 대학생들이 모인 대학생 집단으로, 하나 이상의 학생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개체 간의 분명한 경계가 없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돼 (18)가.의 비문법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들'은 집합을 분해하여 각각의 개별 구성원으로 개체의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수대명사 '우리/우리들', '너희/너희들', '저희/저희들', '여러분/여러분들'에서 '들'도 복수 의미 강조 또는 단순히 잉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19) 가. 우리는 축구공이 하나밖에 없다.
나. 우리들은 축구공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와 '우리들'은 모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19)가.는 '우리' 전체에게 '축구공'이 하나밖에, (19)나.는 '우리' 각자에게 '축구공'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경우 이때 '-들'은 개체성을 확립한다(임홍빈, 2000).

'-들'의 의미와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집단 해석과 배분 해석의 대조이다(홍용철, 2003).

(20) 가. 아이들이 도서관에 갔어요. (집단 해석, 배분 해석)
나. 아이들이 도서관에들 갔어요. (배분 해석)

(20)가.는 '아이들이 함께 도서관에 갔다'는 의미로 집단 해석을, (20)나.는 '아이들 각각이 다른 도서관에 갔다'는 의미로 배분 해석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 대조는 문장의 부사구에 부가된 '-들'에 따른 것으로 이탈리아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징들이다.

4. 복수 표지 '-들'의 결합 양상

이탈리아어와는 다르게 한국어에서 복수 표지 '-들'은 부사, 어미 또는 조사 그리고 독립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먼저 '-들'이 부사와 결합한 예를 보자.

(21) 가. 많이 드셨어요?
나. 빨리 오세요.
다. 왜 이러고 있어요?

(22) 가. 많이들 드셨어요?
나. 빨리들 오세요.
다. 왜들 이러고 있어요?

(22)는 부사에 '-들'이 결합된 경우로 (21)과 비교하여 생략된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 준다. 이때 '-들'은 간접 복수 표지 역할을 한다. 아래는 '-들'이 어미 또는 조사와 결합된 예이다.

(23) 가. 밥은 먹고 다니니?
나.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세요.
다. 그 가방을 가지고 다니더라.

(24) 가. 밥은 먹고들 다니니?
나. 그 소식을 듣고 좋아들 하세요.
다. 그 가방을 가지고들 다니더라.

고영근·구본관(2008)도 아래의 예에서 '-들'은 부사, 조사, 어미 등과도 연결될 수 있어 보조사의 분포 특성과 '-들' 이 없는 문장에서 주어가 단수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들'은 고유한 어휘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가진다는 보조사의 특성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25) 가. 소파에 앉아 한가롭게 신문을 보고-들 있다.
나. 배가 고파서-들 밥을 많이 먹었다.

다음은 ‘-들’이 독립어와 결합된 예이다.

(26) 가. 여보게.
나. 여보게들.

위의 예문은 생략된 주어의 복수가 아니라 ‘-들’ 앞의 선행 성분인 ‘여보게’가 지칭하는 청자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자가 한 명이냐 두 명 이상이냐에 따라 복수 표지 ‘-들’의 실현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복수 표지 ‘-들’은 문장과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김경열, 2020: 12).

(27) 가. 숙제 해 왔어요들?
나. 숙제 해 왔어요?

(27)가.는 문장에 복수 표지 ‘-들’이 실현된 것이고, (27)나.는 ‘-들’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이다. 의미적으로 (27)가.는 복수의 청자를, (27)나.는 단수와 복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표지 ‘-들’의 부가는 복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들’의 교육 필요성과 교육 내용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이 현재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명시적인 어휘 또는 문법 항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전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하신영(2019: 58)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연구와 교재 편찬의 기준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2017년)에서도 복수 표지 ‘-들’을 문법 또는 어휘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있어 복수 표지 ‘-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연구자마다 기준으로 삼는 문법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3] 이러한 문제는 이탈리아 학생을 비롯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들의 모국어의 영향으로 ‘-들’의 사용에 오류를 보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복수 표지 ‘-들’이 가지는 문법적 특이성을 학습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4]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복수접미사의 대조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용 복수 표지 ‘-들’의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7) 가.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에서 ‘복수성’를 표시하는 표지가 존재한다.
나. 이탈리아어와 달리 한국어는 ‘복수 해석’을 위해 반드시 복수 표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성을 가진다.
다.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라.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가산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추가한다.
마. 무정명사에 복수 표지가 부가될 수 있는 이탈리아어와 달리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가산명사보다 유정명사에 더 자주 실현된다.
바.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수사나 단위 명사와 공기할 수 없으므로 수사와 함께 출현한 명사에 복수접미사가 의무적으로 실현되는 이탈리아어와 구분된다. 이는 분류사의 유무에 따른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언어 유형학적 차이를 보여 준다.
사.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집단 해석 및 배분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적 차이를 초래한다.
아.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집합을 분해하여 각각의 개별 구성원으로 개체의 복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자.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조사, 어미, 구, 문장 등에도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어의 복수접미사와 비교하여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는 복수 표지 ‘-들’이 실현되지 않은 명사나 명사구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물 명사보다 유정성을 지닌 명사들에 부가되어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은 이탈리아어 복수 표지 ‘-i/e’처럼 체언의 뒤에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나 서술어 혹은 목적어 위치에서 보조사의 역할을 하며, 이때의 ‘-들’은 결합한 단어의 복수 의미가 아닌 청자의 수가 복수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복수 표지의 대조적 특징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학습 단계별로 교수할 문법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하신영(2019)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서 ‘-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으며 다만《연세 한국어1-1》에서 ‘복수 접미사’,《서울대 한국어1A》에서 ‘복수화 접미사’ 등 새 어휘로, 나머지 교재에서는 예문으로만 제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하신영(2019: 74)에서 제안된 초급 학습자용 복수 표지 ‘-들’의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 ‘들’은 사람 명사에 결합하여 복수의 의미를 더한다.
나. 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수사, 단위 명사)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
다. 불명확한 수를 나타내는 표현(많다, 여러 등)과 함께 쓸 때는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사람 명사-들’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 ‘들’은 복수 인칭 대명사(우리, 저희, 너희, 여러분)에 결합하여 복수 의미를 강조한다.
마. ‘이런, 그런, 저런’ 등의 특정한 수식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셀 수 있는 사물 명사에도 ‘-들’을 붙일 수 있다.

참고문헌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한국언어학회. pp. 3-31.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경열. 2020. 복수 표지 '들'의 문법적 지위 고찰. **영주어문**. 44. 영주어문학회. pp. 5-29.

김중섭 외.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김찬곤. 2017. 복수접미사 '-들'과 서양 문법의 '수 범주'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 423-443.

남기심, 고영근. 2017. **표준 국어문법론**. 박이정.

노은주. 2008. 한국어 무표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제15집 제1호. 담화인지 언어학회. pp. 43-62.

배주채. 2019. **한국어문법**. 신구문화사.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담화와인지언어학회. pp. 59-78.

백봉자. 2006.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서정수.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편.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건희. 2018.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의 습득 양상—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117. pp. 203-226.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pp. 3-50.

전영철. 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한국언어학회. pp. 337-359.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하신영. 2019.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복수 표지 '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21. 한민족어문학회. pp. 53-79.

홍용철. 2003. 비해석성 표지 '들', **프랑스어문교육**. 제15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pp. 253-285.